

## 아동·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과 또래괴롭힘

### 피해/가해경험 간의 관계

: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및 사이버 또래괴롭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Cognitive Distortion and

Peer Bully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bullying

이승은(Seung Eun Lee), 김은영(Eun Young Kim), 김정민(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cognitive distortion and peer bully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on moral cognitive distortion and peer bullying were administered to 678 students in the 4th, 5th, 7th, 8th, 10th and 11th grad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2.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ile grad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oral cognitive distor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gender did not. On bullying perpetration and bullying victimization, both gender and grad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2) Moral cognitive distor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er bullying. More specificall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variables affecting bullying victimization and bullying perpetration were found to be worst-case-scenario thinking and other-blame thinking, respectively. For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ization was affected most significantly by worst-case-scenario thinking, followed by gender; perpetration was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worst-case-scenario thinking. For high school students, victimization was affected most significantly by other-blame thinking, followed by gender; perpetration was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other-blame thinking.

---

▲주제어(Key Words) : 아동(children), 청소년(adolescents), 또래괴롭힘(peer bullying), 도덕적 사고 왜곡(moral cognitive distortion)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Tel: +82-10-300-0603, E-mail: jmkim122@mju.ac.kr

## I. 서론

또래괴롭힘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또래들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른 또래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호 신체적 또는 심리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일어난다(D. Olweus, 1993). 구체적인 또래괴롭힘 유형으로는 때리거나 밀기, 꼬집기 등의 신체적 또래괴롭힘, 헐뜯기나 위협, 놀림, 욕 등의 언어적 또래괴롭힘, 무시, 거짓 소문 퍼뜨리기, 따돌림 등의 관계적 또래괴롭힘, 사이버 매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괴롭힘이 있다(J. Raskauskas & A. D. Stoltz, 2007; J. Wang, R. J. Iannotti, & T. R. Nansel, 2009). 최근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2011)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6년도 학교폭력 피해율 17.8%와 가해율 12.6%이던 것이 2011년에 이르러 피해율 18.8%와 가해율 1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40.8%가 학교폭력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2).

이렇듯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많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 또는 가해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중 특히 정서 및 사회적 특성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들은 우울, 불안, 외로움,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 등교 거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 Baik, 2010; M. J. Boulton & K. Underwood, 1992; B. Choi & J. Lim, 1999; A. M. La Greca & H. M. Harrison, 2005; C. Lee & K. Kwak, 2000; D. Olweus, 1993; S. Shin, S. Kwon, M. Shin, & S. Cho, 2000; R. S. Siegel, A. M. La Greca, & H. M. Harrison, 2009; E. A. Storch, M. R. Brassard, & C. L. Masia-Warner, 2003). 또한 또래괴롭힘 가해 아동들의 경우, 공격 성향이 주요 특성으로 다루어졌다(S. Choung, 2005; D. Olweus, 2003). 그러나 또래괴롭힘 경험(피해경험, 가해경험)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서, 행동 특성의 기제로 작동하는 사회적 인지 변인에 관해서는 수행된 연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또래괴롭힘 행동이 타인의 복지(others' welfare), 정의(justice), 공정(fairness), 돌봄(care) 등과 같은 도덕적 추론의 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몇몇 선행 연구들만이 공감 부족과 같은 도덕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행동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G. Gini, P. Albiero, B. Benelli, & G. Altoè, 2007; D. Jolliffe & D. P.

Farrington, 2004; D. Jolliffe & D. P. Farrington, 2006).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과 관계가 있는 사회인지적 변인으로 도덕적 사고의 왜곡 양식에 주목하였다. 도덕적 사고의 왜곡은 옳고 그름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정확하고 편향된 방법으로 이해하는 사고의 오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한 자기 개념의 손상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A. Q. Barriga, J. C. Gibbs, G. B. Potter, & A. K. Liau, 2001).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덕적 사고의 왜곡에는 타인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에 초점 맞추기식 사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순간적인 일탈의 탓으로 돌리는 타인 비난하기식 사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타인을 하찮게 표현하는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식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파국적 결말을 예측하는 최악 가정하기식 사고 등이 포함된다(A. Q. Barriga et al., 2001). 과거 전반적인 도덕적 사고 수준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은데, 이는 친사회적 상황에서의 도덕적 사고와 반사회적 상황에서의 도덕적 사고의 구분이 모호한 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과 같은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전반적인 도덕적 사고 수준보다 도덕적 사고의 왜곡과 같은 역기능적 사고 양식이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도덕적 사고의 왜곡이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A. Q. Barriga et al., 2001; J. C. Gibbs, 2010; H. C. Irle, 2012; A. K. Liau, A. Q. Barriga, & J. C. Gibbs, 1998; C. N. Nas, D. Brugman, & W. Koops, 2008; F. van der Velden, D. Brugman, J. Boom, & W. Koops, 2010). 한편,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선행연구들은 피해경험 혹은 가해경험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나(S. An, S. Lee, S. Lee, J. An, & J. An, 2012; J. Baik, 2010; A. Q. Barriga, E. M. Morrison, A. K. Liau, & J. C. Gibbs, 2001; J. Kim, 2012; M. Lardéna, L. Melinb, U. Holstc, & N. Långströma, 2006), 근래 등장한 사이버 또래괴롭힘의 실태 및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또래괴롭힘의 유형 변화에 관해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고는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적 변화를 거치므로(J. C. Gibbs, K. S. Basinger, R. L. Grime, & J. R. Snarey, 2007; J. R. Snarey, 1985), 도덕적 사고의 왜곡 양식 또한 연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의 연령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또래괴롭힘 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또래괴

롭힘 등 각 유형에 따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따라, 그리고 아동기~청소년기의 발달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사고의 왜곡 내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도덕적 추론 양식에 따라 특정 정서 및 행동 경향으로 이어져, 다양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거나, 또는 또래괴롭힘 가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아동·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도덕적 사고 왜곡과 또래괴롭힘 피해/가해경험(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사이버)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아동·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 피해/가해경험(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사이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학년생 93명, 5학년생 112명, 중학교 2개교의 1학년생 119명, 2학년생 113명, 고등학교 2개교의 1학년생 126명, 2학년생 115명을 포함한 총 678명(남학생 328명, 여학생 350명)의 질문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참조).

###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1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1개 중학교 1, 2학년생, 1개 고등학교 1, 2학년생 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대상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 일부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21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8개 학급, 중학교 2개교의 7개 학급, 고등학교 2개교의 7개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질문 내용,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지와 함께 질문지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20~40분간 실시되었으며, 총 716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질문지 38부를 제외한 총 678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연구도구

#### 1) 도덕적 사고 왜곡 척도

도덕적 사고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A. Q. Barriga et al.(2001)이 개발한 도덕적 사고 왜곡 척도(How I Think Questionnaire: HIT-Q)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 전공 교수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쳤으며, 예비연구를 실시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보편적인 도덕적 추론에 관한 것들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용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J. Kim & E. Turiel, 1996; K. Neff & C. C. Helwing, 2002; L. Nucci, 2002). 본 척도는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 ‘타인 비난하기’,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 ‘최악 가정하기’등 4개 하위 유형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78)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Elementary 4th	93(13.7)
	Elementary 5th	112(16.5)
	Middle school 1th	119(17.6)
	Middle school 2th	113(16.7)
	High school 1th	126(18.6)
	High school 2th	115(17.0)
Gender	Male	328(48.4)
	Female	350(51.6)

식은 6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사고의 왜곡이 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으며, 하위 유형인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 타인 비난하기,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 최악 가정하기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8, .73, .73, .76이었다.

### 2)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K. Börkqvist, K. M. J. Lagerspetz and K. Österman(1992)이 개발한 직·간접적 또래괴롭힘 척도(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Scale)를 C. D. Pornari and J. Wood(2010)가 가해 척도와 피해 척도로 나누어 수정한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척도(Peer Aggression/Victimization Questionnaire)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 전공 교수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쳤으며, 예비연구를 실시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척도와 가해경험 척도로 나누며, 신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언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등 6개의 하위 유형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2였으며, 하위 유형인 신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69, .68, .68이었다. 또한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으며, 하위 유형인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언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61, .61, .64였다.

### 3) 사이버 또래괴롭힘 척도

사이버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R. M. Kowalski and S. Limber(2004)가 개발한 사이버 또래괴롭힘 척도(Electronic Bullying Questionnaire)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아동학 전공 교수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쳤으며, 예비연구를 실시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사이버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등 2개의 하위 유형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84였으며, 사이버 또

래괴롭힘 가해경험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t-검증, 이원변량분석(2-Way ANOVA), 사후검증(Schëffe),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사고 왜곡과 또래괴롭힘의 차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도덕적 사고 왜곡과 또래괴롭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과 Schë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덕적 사고 왜곡의 경우, 학년( $F = 25.20, p < .001$ )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도덕적 사고의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 타인 비난하기,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 최악 가정하기는 각각 학년( $F = 46.76, p < .001, F = 9.31, p < .001, F = 26.65, p < .001, F = 11.50, p < .001$ )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모두 높았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경우, 전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학년( $F = 17.03, p < .001$ )과 성별( $F = 13.45, p < .001$ )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학년( $F = 21.99, p < .001, F = 15.11, p < .001$ )과 성별( $F = 24.07, p < .001, F = 9.73, p < .01$ )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및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았다. 반면,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학년( $F = 12.50, p < .001$ )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성별( $F = 10.54, p < .01$ )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678)

Grade	Gender	1	2	3	4	5	6	7	8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Elementary	Male	89.43 (25.44)	19.98 (7.11)	25.08 (8.93)	19.39 (6.32)	26.28 (7.94)	28.29 (8.76)	4.77 (2.11)	5.25 (2.73)
		104.39 (27.00)	24.73 (7.33)	28.02 (6.78)	22.74 (6.82)	28.95 (7.89)	28.01 (7.54)	5.16 (2.52)	5.09 (2.43)
		103.38 (21.91)	24.90 (6.01)	27.27 (5.91)	22.89 (5.50)	28.65 (6.53)	24.84 (7.14)	3.78 (1.41)	4.14 (2.06)
		99.27 (25.73)	23.25 (7.20)	26.83 (73.38)	21.71 (6.43)	27.99 (7.58)	27.06 (7.96)	4.59 (2.15)	4.83 (2.47)
Elementary	Female	86.83 (23.22)	19.00 (6.36)	24.51 (7.15)	18.64 (5.64)	24.61 (6.55)	26.43 (6.21)	4.15 (1.51)	4.79 (2.08)
		102.82 (22.68)	24.44 (6.24)	26.88 (6.36)	22.72 (5.94)	28.14 (6.84)	25.85 (5.84)	4.10 (1.64)	4.39 (1.81)
		102.90 (21.61)	25.92 (6.60)	27.16 (6.32)	22.32 (5.44)	27.86 (7.06)	23.14 (4.08)	3.43 (1.19)	3.76 (1.57)
		98.78 (23.39)	23.60 (6.99)	26.33 (6.66)	21.42 (5.91)	27.09 (7.00)	24.97 (5.53)	3.85 (1.48)	4.26 (1.85)
Elementary	Total	88.19 (24.37)	19.52 (6.77)	24.80 (8.10)	19.02 (5.99)	25.50 (7.35)	27.39 (7.67)	4.47 (1.86)	5.02 (2.44)
		103.57 (24.78)	24.58 (6.79)	27.45 (6.58)	22.73 (6.37)	28.54 (7.37)	26.92 (6.81)	4.63 (2.19)	4.74 (2.17)
		103.10 (21.69)	25.48 (6.36)	27.21 (6.14)	22.57 (5.46)	28.19 (6.84)	23.89 (5.69)	3.58 (1.30)	3.93 (1.81)
		99.01 (24.49)	23.43 (7.10)	26.57 (7.01)	21.55 (6.16)	27.53 (7.29)	25.97 (6.88)	4.21 (1.87)	4.53 (2.18)

1. Moral Cognitive Distortion 2. Self-Centered 3. Blaming Others 4. Minimizing/Mislabeling  
5. Assuming the Worst 6. Peer Bullied 7. Physical Bullied 8. Verbal Bullied

Grade	Gender	9	10	11	12	13	14	15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Elementary	Male	6.34 (2.72)	11.82 (3.58)	25.28 (6.37)	4.08 (1.26)	4.52 (1.70)	5.79 (2.48)	10.84 (3.04)
		6.04 (2.10)	11.73 (3.68)	25.98 (7.20)	4.31 (1.92)	4.76 (2.15)	5.73 (2.13)	11.25 (2.98)
		5.43 (1.63)	11.49 (4.29)	23.29 (6.81)	3.44 (1.15)	4.00 (1.72)	5.08 (1.77)	10.81 (3.56)
		5.94 (2.22)	11.68 (3.85)	24.88 (6.88)	3.96 (1.54)	4.44 (1.90)	5.54 (2.17)	10.98 (3.19)
Elementary	Female	6.40 (2.33)	11.07 (2.50)	23.57 (4.59)	3.51 (.90)	4.01 (1.53)	5.66 (1.90)	10.40 (1.23)
		6.28 (2.11)	11.07 (2.42)	24.53 (4.75)	3.55 (1.32)	4.06 (1.53)	6.42 (2.23)	10.64 (1.54)
		5.41 (1.81)	10.56 (1.51)	23.11 (3.80)	3.26 (.78)	3.75 (1.53)	5.69 (1.81)	10.61 (2.70)
		5.98 (2.11)	10.87 (2.14)	23.71 (4.38)	3.43 (1.03)	3.93 (1.53)	5.92 (2.01)	10.56 (2.01)
Elementary	Total	6.37 (2.53)	11.47 (3.13)	24.48 (5.65)	3.81 (1.14)	4.28 (1.64)	5.73 (2.22)	10.63 (2.37)
		6.16 (2.10)	11.39 (3.11)	25.25 (6.13)	3.93 (1.69)	4.41 (1.89)	6.07 (2.20)	10.95 (2.39)
		5.42 (1.73)	10.96 (3.08)	23.19 (5.32)	3.34 (.96)	3.86 (1.62)	5.42 (1.82)	10.70 (3.10)
		5.96 (2.16)	11.26 (3.11)	24.28 (5.76)	3.68 (1.33)	4.17 (1.73)	5.74 (2.09)	10.76 (2.66)

9. Relational Bullied 10. Cyber Bullied 11. Peer Bully 12. Physical Bully 13. Verbal Bully 14. Relational Bully 15. Cyber Bully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았으며,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한편, 전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은 학년( $F = 7.60, p < .01$ )과 성별( $F = 6.27, p < .05$ )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은 학년( $F = 13.37, p < .001$ )과 성별( $F = 26.24, p < .001$ )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함께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F = 3.18, p < .05$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wo-way ANOVA of Moral Cognitive Distortion according to Grade and Gender

(N=678)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Schëffe
Moral Cognitive Distortion	Elementary					a
	Middle	28066.11	2	14033.06	25.20***	b
	High					b
	Gender	349.82	1	349.82	.63	
	Grade * Gender	107.39	2	53.69	.10	
	Error	328513.48	590	556.80		
Self-Centered	Elementary					a
	Middle	4115.42	2	2057.71	46.76***	b
	High					b
	Gender	1.14	1	1.14	.03	
	Grade * Gender	109.18	2	54.59	1.24	
	Error	28255.02	642	44.01		
Blaming Others	Elementary					a
	Middle	893.671	2	446.84	9.31***	b
	High					b
	Gender	59.75	1	59.75	1.24	
	Grade * Gender	29.85	2	14.92	.31	
	Error	31403.01	654	48.02		
Minimizing /Mislabeling	Elementary					a
	Middle	1812.69	2	906.35	25.65***	b
	High					b
	Gender	32.34	1	32.34	.92	
	Grade * Gender	15.61	2	7.81	.22	
	Error	22720.42	643	35.34		
Assuming the Worst	Elementary					a
	Middle	1183.91	2	591.96	11.50***	b
	High					b
	Gender	191.49	1	191.49	3.72	
	Grade * Gender	25.79	2	12.90	.25	
	Error	33398.55	649	51.46		

\*\*\* $p < .00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Figure 1>과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M = 4.08, SD = 1.26, M = 4.31, SD = 1.92)이 여학생(M = 3.51, SD = .90, M = 3.55, SD = 1.32)보다 신체적 가해경험이 많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적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과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은 각각 학년(F = 6.20,  $p < .01$ , F = 6.50,  $p < .01$ )과 성별(F = 13.74,

$p < .001$ , F = 5.96,  $p < .05$ )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언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반면,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사이버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은 성별(F = 4.04,  $p < .05$ )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경험이 더 많았다.

Table 4. Two-way ANOVA of Peer Bullying according to Grade and Gender

(N=678)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Schëffe
Peer Bullied	Elementary					a
	Middle	1510.29	2	755.14	17.03***	a
	High					b
	Gender	596.63	1	596.63	13.45***	
	Grade * Gender	6.08	2	3.04	.07	
	Error	29095.94	656	44.35		
Physical Bullied	Elementary					a
	Middle	139.29	2	69.64	21.99***	a
	High					b
	Gender	76.24	1	76.24	24.07***	
	Grade * Gender	14.72	2	7.36	2.32	
	Error	2109.04	666	3.17		
Verbal Bullied	Elementary					a
	Middle	136.51	2	68.25	15.11***	a
	High					b
	Gender	43.93	1	43.93	9.73**	
	Grade * Gender	3.21	2	1.60	.36	
	Error	3022.06	669	4.52		
Relational Bullied	Elementary					a
	Middle	113.05	2	56.52	12.50***	a
	High					b
	Gender	1.44	1	1.44	.32	
	Grade * Gender	2.10	2	1.05	.23	
	Error	3025.96	669	4.52		
Cyber Bullied	Elementary					a
	Middle	24.65	2	12.33	1.29	a
	High					a
	Gender	100.47	1	100.47	10.54**	
	Grade * Gender	2.25	2	1.18	.12	
	Error	6339.59	665	9.53		

continued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Schëffe
Peer Bully	Elementary					a
	Middle	490.95	2	245.48	7.60**	a
	High					b
	Gender	202.33	1	202.33	6.27*	
	Grade * Gender	75.16	2	37.58	1.16	
	Error	21181.25	656	32.29		
Physical Bully	Elementary					ab
	Middle	43.43	2	21.72	13.37***	a
	High					b
	Gender	42.61	1	42.61	26.24***	
	Grade * Gender	10.32	2	5.16	3.18*	
	Error	1087.93	670	1.62		
Verbal Bully	Elementary					a
	Middle	36.00	2	18.00	6.20**	a
	High					b
	Gender	39.91	1	39.91	13.74***	
	Grade * Gender	5.98	2	2.99	1.03	
	Error	1940.30	668	2.91		
Relational Bully	Elementary					ab
	Middle	55.40	2	27.70	6.50**	a
	High					b
	Gender	25.41	1	25.41	5.96*	
	Grade * Gender	21.87	2	10.94	2.57	
	Error	2846.22	668	4.26		
Cyber Bully	Elementary					a
	Middle	12.40	2	6.20	.88	a
	High					a
	Gender	28.48	1	28.48	4.04*	
	Grade * Gender	5.02	2	2.51	.36	
	Error	4675.05	663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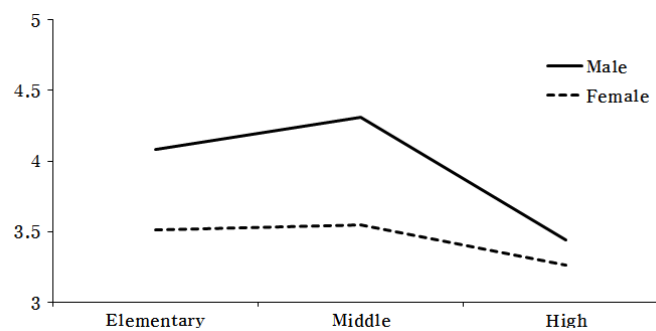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Figure 1. The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Grader for Physical Bullying



2. 아동·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또래괴롭힘을 종속변수로, 각 학교 구분에 따라 상관관계분석에서 또래괴롭힘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Table 6>,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앞서 또래괴롭힘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변인에 추가하였다. 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99~1.00으로 모두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계수는 1.00~1.01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1.49~2.21의 범위에 속하므로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1) 초등학교생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전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38, p < .001$ )로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F = 27.74, p < .001$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30, p < .001$ )로 설

명력은 9%였고( $F = 15.85, p < .001$ ),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27, p < .001$ )로 설명력은 7%였다( $F = 12.74, p < .001$ ).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37, p < .001$ )로 설명력은 14%였고( $F = 26.36, p < .001$ ),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 $\beta = .22, p < .01$ )로 설명력은 5%였다( $F = 8.23, p < .01$ ).

한편, 전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36, p < .001$ )로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F = 25.16, p < .001$ ).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26, p < .01$ )로 설명력은 7%였으며( $F = 12.21, p < .01$ ), 이에 성별( $\beta = -.18, p < .05$ )의 3%가 추가되어 총 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9.18, p < .001$ ). 언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30, p < .001$ )로 설명력은 9%였으며( $F = 16.83, p < .001$ ), 이에 성별( $\beta = -.16, p < .05$ )의 3%가 추가되어 총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10.90, p < .001$ ).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39, p < .001$ )로 설명력은 15%였고( $F = 29.51, p < .001$ ), 사이버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38, p < .001$ )로 설명력은 15%였다( $F = 29.24, p < .001$ ).

Table 5. Effect of Moral Cognitive Distortion on Peer Bullying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N=205)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R <sup>2</sup>	$\Delta R^2$	F
Peer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37	.38***	.15		27.74***
Physical Bullied	1	Blaming Others	.07	.30***	.09		15.85***
Verbal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09	.27***	.07		12.74***
Relational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13	.37***	.14		26.36***
Cyber Bullied	1	Minimizing/ Mislabeled	.11	.22**	.05		8.23**
Peer Bully	1	Blaming Others	.25	.36***	.13		25.16***
Physical Bully	1	Assuming the Worst	.04	.26**	.07		12.21**
	2	Gender	-.37	-.18*	.10	.03	9.18***
Verbal Bully	1	Blaming Others	.06	.30***	.09		16.83***
	2	Gender	-.49	-.16*	.12	.03	10.90***
Relational Bully	1	Blaming Others	.10	.39***	.15		29.51***
Cyber Bully	1	Blaming Others	.26	.38***	.15		29.24***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6. Effect of Moral Cognitive Distortion on Peer Bullying by Middle School Students (N=23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R <sup>2</sup>	$\Delta R^2$	F
Peer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23	.24***	.06		13.16***
	2	Gender	-2.03	-.15*	.08	.02	9.16*
Physical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08	.25***	.06		14.50***
	2	Gender	-1.07	-.24***	.12	.06	14.62***
Verbal Bullied	1	Gender	-.70	-.16*	.03		6.15*
Relational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05	.19**	.04		8.62**
Cyber Bullied	1	Assuming the Worst	.06	.15*	.02		5.29*
Peer Bully	1	Assuming the Worst	.25	.31***	.09		20.17***
Physical Bully	1	Self-Centered	.06	.25***	.06		13.56***
	2	Gender	-.72	-.21**	.11	.05	12.13***
Verbal Bully	1	Gender	-.79	-.21**	.04		9.25**
	2	Assuming the Worst	.04	.17*	.07	.03	7.78**
Relational Bully	1	Self-Centered	.10	.31***	.10		21.63***
	2	Gender	.72	.16*	.12	.02	14.02***
Cyber Bully	1	Assuming the Worst	.07	.23**	.05		11.93**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7. Effect of Moral Cognitive Distortion on Peer Bullying by High School Students (N=67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R <sup>2</sup>	$\Delta R^2$	F
Peer Bullied	1	Blaming Others	.17	.22**	.05		11.70**
	2	Gender	-1.55	-.16*	.08	.03	9.12***
Physical Bullied	1	Gender	-.36	-.14*	.02		4.47*
Verbal Bullied	1	Blaming Others	.05	.17**	.03		7.18**
Relational Bullied	1	Blaming Others	.05	.19*	.03		8.33**
Cyber Bullied	1	Blaming Others	.07	.15*	.02		5.40*
	2	Gender	-.78	-.14*	.04	.02	5.17**
Peer Bully	1	Blaming Others	.15	.22**	.05		11.47**
Physical Bully	1	Blaming Others	.02	.16*	.03		5.92*
Verbal Bully	1	Blaming Others	.04	.15*	.02		5.55*
Relational Bully	1	Gender	.63	.17**	.03		7.29**
	2	Blaming Others	.04	.15*	.05	.02	6.37**
Cyber Bully	1	Minimizing/ Mislabeled	.08	.14*	.02		4.35*

\* $p < .05$ , \*\* $p < .01$ , \*\*\* $p < .001$

2) 중학생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전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24, p < .001$ )로 설명력은 6%였으며 ( $F = 13.16, p < .001$ ), 이에 성별( $\beta = -.15, p < .05$ )의 2%가 추가되어 총 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9.16, p < .05$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25, p < .001$ )로 설명력은 6%였으며( $F = 14.50, p < .001$ ), 이에 성별( $\beta = -.24, p < .001$ )의 6%가 추가되어 총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14.62, p < .001$ ).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beta = -.16, p < .05$ )로 설명력은 3%였고( $F = 6.15, p < .05$ ),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19, p < .01$ )로 설명력은 4%였다( $F = 8.62, p < .01$ ).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15, p < .05$ )로 설명력은 2%였다( $F = 5.29, p < .05$ ).

한편, 전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31, p < .001$ )로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F = 20.17, p < .001$ ).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 $\beta = .25, p < .001$ )로 설명력은 6%였으며( $F = 13.56, p < .001$ ), 이에 성별( $\beta = -.21, p < .01$ )의 5%가 추가되어 총 1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12.13, p < .001$ ). 언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beta = -.21, p < .01$ )로 설명력은 4%였으며( $F = 9.25, p < .01$ ), 이에 최악 가정하기( $\beta = .17, p < .05$ )의 3%가 추가되어 총 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7.78, p < .01$ ).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 $\beta = .31, p < .001$ )로 설명력은 10%였으며( $F = 21.63, p < .001$ ), 이에 성별( $\beta = .16, p < .05$ )의 2%가 추가되어 총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14.02, p < .001$ ). 사이버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beta = .23, p < .01$ )로 설명력은 5%였다( $F = 11.93, p < .01$ ).

### 3) 고등학생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전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22, p < .01$ )로 설명력은 5%였으며( $F = 11.70, p < .01$ ), 이에 성별( $\beta = -.16, p < .05$ )의 3%가 추가되어 총 8%로 나타났다( $F = 9.12, p < .001$ ).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beta = -.14, p < .05$ )로 설명력은 2%였고( $F = 4.47, p < .05$ ), 언어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17, p < .01$ )로 설명력은 3%였다( $F = 7.18, p < .01$ ).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적 사고( $\beta = .19, p < .05$ )로 설명력은 3%였다( $F = 8.33, p < .01$ ). 사이버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15, p < .05$ )로 설명력은 2%였으며( $F = 5.40, p < .05$ ), 이에 성별( $\beta = -.14, p < .05$ )의 추가되어 2%가 증가한 총 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5.17, p < .01$ ).

한편, 전체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22, p < .01$ )로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F = 11.47, p < .01$ ).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16, p < .05$ )로 설명력은 3%였고( $F = 5.92, p < .05$ ), 언어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beta = .15, p < .05$ )로 설명력은 2%였다( $F = 5.55, p < .05$ ). 관계적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beta = .17, p < .01$ )로 설명력은 3%였으며( $F = 7.29, p < .01$ ), 이에 타인 비난하기( $\beta = .15, p < .05$ )의 2%가 추가되어 총 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6.37, p < .01$ ). 사이버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 $\beta = .14, p < .05$ )로 설명력은 2%였다( $F = 4.35, p < .05$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과 또래괴롭힘(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사이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도덕적 사고 왜곡, 또래괴롭힘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전체 도덕적 사고 왜곡 및 하위 유형들에서 모두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의 도덕적 사고가 규칙 수용의 중시, 원칙 중심의 당위적인 경향성, 이분법적 사고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M. Gwon, J. Kim, & H. Choi, 2008; E. Jo, 2005; S. Kim, 1992). 한편, 청소년기는 자의식의 증가와 더불어 자기애적 자아중심성 성향이 두드러짐에 따라(J. C. Gibbs, K. S. Basinger, & D. Fuller, 1992; F. van der Velden et al., 2010)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사고의 편향을 보일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빈번한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는 연령이 몇몇 선행 연구들(M. J. Boulton & K. Unerwood, 1992; D. Olweus, 1991; D. Perry, S. Kusel, & L. C. Perry, 1998)에서 보고되었던 초기 청소년기에서 아동기로 낮아짐을 가리킨다. 또한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경우에는 또래괴롭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신체적, 언어적 또래괴롭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관계적 또래괴롭힘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신체적 또래괴롭힘에서는 유일하게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또래괴롭힘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초기 청소년기에 남학생이 물리적 힘의 과시를 통해 또래 관계에서 더 높은 지위나 사회적 승인을 얻는 경향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K. Lee & K. Oh, 1998; K. Rigby & P. T. Slee, 1991). 전반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가해경험은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이버 또래괴롭힘의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모두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또래괴롭힘 유형들과 구별되는 양상을 띠는 점은 흥미롭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가해경험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도덕적 사고의 왜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 또래괴롭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단, 관계적 또래괴롭힘의 경우, 피해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해경험에서는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때리거나 밀기, 욕하거나 헐뜯기, 악의적인 문자 보내기 등 직접적인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을 더 많이 수행함을 가리킨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 간접적인 또래괴롭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간 갈등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 대면하였을 때 분노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내고, 공격적인 성향이 높으며,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J. Im & Y. Kim, 2010; J. Kim, 2004). 더욱이 남학생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인 사회문화적 태도 또한 이러한 또래괴롭힘 성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도덕적 사고 왜곡의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관적인 인지적 책략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추론 수준이 뚜렷한 성차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E. Bang, 1995; C. Gilligan, 1982; C. B. Keasey, 1972; Y. Moon, 1988; J. R. Rest, 1986).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정성과 돌봄과 관련한 도덕적 사고에서는 성차가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S. C. S. Caravita, P. Di Blasio, & C. Salivalii, 2010; G. Gini et al., 2007; I. Oh, 2010),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축적된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사고의 왜곡은 각각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의 전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사고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적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해하여 일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사고는 불안과 위축을 증가시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실패하도록 이끌어서 또래괴롭힘의 대상이 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의 신체적 피해경험의 경우, 타인 비난하기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가벼운 다툼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실패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을 경우 상대방의 분노를 촉발하기 쉬워 신체적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이버 피해경험의 경우, 축소하기/잘못 이름 붙이기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인지적 전략은 문제를 축소하여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상의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가 적어 온라인상의 공격 대상이 되기 용이한 점이 있다. 한편,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 비난하기 사고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괴롭힘 가해 아동들은 자신은 문제가 없으며 피해 아동이 잘못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경우가 흔한데(Y. Choi, H. Jhin, & J. Kim, 2001),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중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최악 가정하기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결말을 예측할 경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

한 염려와 불안이 증가하게 된다(K. Lee, 2001). 즉,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이러한 수동적 성향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아 또래괴롭힘에 대한 적응적인 대응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또래괴롭힘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한편,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최악 가정하기 사고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또래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선행연구 결과(K. D. Hanish & N. Guerra, 2004; S. Lee, 2000)와 관련이 있다. 한편,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볼 때, 중학생의 신체적 가해경험과 관계적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자기에게 초점 맞추기식 사고는 청소년기 초기의 급격한 자의식의 증가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남학생의 신체적 가해 행동과 여학생의 관계적 가해 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동일하게 타인 비난하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대로 이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자-가해자 역할 중복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또래괴롭힘 경험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 후기에 이르기까지 과거 축적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지적 전략을 강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대다수의 또래괴롭힘 관련 선행연구(A. C. Baldry, 2004; K. Choi, 2012; Y. Kim, 2006; A. B. Klomek, F. Marrocco, M. Kleinman, I. S. Schonfeld, & M. S. Could, 2008; Olweus, 1993; J. Song, 2010)들이 정서적 변인들에 치중하거나, 또는 공감 능력의 결여(S. C. S. Caravita et al., 2010; G. Gini et al., 2007; D. Jolliffe & D. P. Farrington, 2006)와 같은 도덕적 특성을 다루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특정 도덕적 사고 왜곡 유형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구분하고, 사이버 또래괴롭힘을 추가한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또래괴롭힘 유형들 간의 비교 및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초기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교, 논의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또래괴롭힘이나 도덕적 사고의 왜곡과 같은 변인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에 취약하므로, 교사 보고, 또래 보고 등의 다차원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는 도덕적 사고의 왜곡이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행 청소년 혹은 보호 관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수행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n, S. H., Lee, S. Y., Lee, S., An, J. H., & An, J. W. (2012).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bullying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maladaptive narcissism and moral disengage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225-246.

Baik, J.-H. (2010). *Understanding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al, social characteristics and bullying participant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ldry, A. C. (2004). The impact of direct and indirect bullying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Italian youngsters. *Aggressive Behavior, 30*, 343-355.

Bang, E. R. (1995). *Content analysis of self-reports on moral development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Barriga, A. Q., Gibbs, J. C., Potter, G. B., & Liau, A. K. (2001). *How I think (HIT) questionnaire manual*. Champaign, IL: Research Press.

Barriga, A. Q., Morrison, E. M., Liau, A. K., & Gibbs, J. C. (2001). Moral cognition: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anti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7*(4), 532-562.

Börkqvist, K., Lagerspetz, K. M. J., & Österman, K. (1992). *The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scales*. Vasa, Finland: Abo Akademi University.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ivalii, C. (2010). Early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bullying: Is Tom,

- involved?.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1), 138-170.
- Choi, B. G., & Lim, J. Y. (1999).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loneliness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5), 111-121.
- Choi, K.-W. (2012). *The relation between moral emotions, defending and outsider behaviors in adolescents: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class norm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J., Jhin, H.-K., & Kim, J.-W. (2001). A study on the personality trait of bullying & victimized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1), 94-102.
- Choung, S. J. (2005). *Children's social behavior,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in relation to pe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Gibbs, J. C. (2010).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Beyond the theories of Kohlberg and Hoffman*. Boston: Allyn & Bacon.
- Gibbs, J. C., Basinger, K. S., & Fuller, D. (1992). *Moral maturity: Measuring the development of sociomoral reflection*. Hillsdale, NJ: Erlbaum.
- Gibbs, J. C., Basinger, K. S., Grime, R. L., & Snarey, J. R. (2007). Moral judgment development across cultures: Revisiting Kohlberg's universality claims. *Developmental Review*, 27(4), 443-500.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3(5), 467-476.
- Gwon, M. G., Kim, J. M., & Choi, H. S. translation. (2008). *Children and development*. Seoul: Σ Press.
- Hanish, K. D., & Guerra, N. (2004).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Developmental continuity or developmental chang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17-38.
- Im, J. I., & Kim, Y. S. (2010). Levels of acceptance of violence by parents and the effects on their children's experiences of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243-262.
- Irlle, H. C. (2012). *Moral cognition and bullying in secondary school: A cross-cultural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trecht University, Utrecht, Netherlands.
- Jo, E. (2005). The review of cognitive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ildren's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12, 83-99.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 Keasey, C. B. (1972). The lack of sex differences in the moral judgments of pre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 157-158.
- Kim, J. E. (2012). *The differences of empathy,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group norms according to the role of bystanders in bullying situations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M. (2004). A study on elementary children's coping strategies in peer victimiz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793-807.
- Kim, J. M., & Turiel, E. (1996). Korean and American children's concept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Social Development*, 5(3), 310-329.
- Kim, S. Y. (1992). Moral and transactional form judgments on the situation of children. *Child Studies*, 1, 57-71.
- Kim, Y. (2006).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prim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lomek, A. B., Marrocco, F., Kleinman, M., Schnfeld, I. S., & Gould, M. S.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38(2), 166-170.
- Kowalski, R. M., & Limber, S. (2004).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22-30.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 49-61.
- Lardéna, M., Melinb, L., Holstc, U., & Långströma, N. (2006). Moral judgement, cognitive distortions and

- empathy in incarcerated delinquent and community control adolescents. *Psychology: Crime & Law*, 12(5), 453-462.
- Lee, C.-J., & Kwak, K. (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Korea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13(1), 65-80.
- Lee, K. H., & Oh, K. J. (1998, October).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oriented and externalizing aggress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 Lee, K. N. (2001).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related variables - focusing on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locus of control and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8), 37-52.
- Lee, S.-G. (2000). Adolescents' moral reasoning & attribution about peer viol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2, 314-339.
- Liau, A. K., Barriga, A. Q., & Gibbs, J. C. (1998). Relations between 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 and overt vs. covert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24(5), 335-346.
- Moon, Y. L. (1988). *Moral and education*. Seoul: Kabeul.
- Nas, C. N., Brugman, D., & Koops, W. (2008). Measuring self-serving cognitive distortions with the "How I Think" questionnaire.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4(3), 181-189.
- Neff, K., & Helwig, C. C. (2002).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about rights and authority within cultural contexts. *Cognitive Development*, 17(3-4), 1429-1450.
- Nucci, L. (2002).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In U. Goswami (ED.),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Oxford, UK: Blackwell.
- Oh, I. (2010).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to bullying: A focus on empathy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1), 45-63.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5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 Olweus, D. (2003). A profile of bullying at school. *Educational Leadership*, 60(6), 13-17.
- Perry, D., Kusel, S., & Perry, L. C. (199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611-621.
- Pornari, C. D., & Wood, J. (2010). Peer and cyber aggres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outcome expectancies. *Aggressive Behavior*, 36(2), 81-94.
- Raskauskas, J., &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64-575.
-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NY: Prager.
- Rigby, K., & Slee, P.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ur and attitudes to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5), 615-627.
- Shin, S.-W., Kwon, S.-W., Shin, M.-S., & Cho, S.-C. (2000). A survey of the psychosis among school violence victim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1(1), 124-143.
- Siegel, R. S.,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9).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Prospective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8, 1096-1109.
- Snarey, J. R. (1985).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ocial-mor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Kohlbergia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7(2), 202-232.
- Song, J. Y. (2010).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emotional expressiveness, social support and somatic complai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torch, E. A., Brassard, M. R., & Masia-Warner, C. L. (2003). The relationship of peer victimization to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in adolescence. *Child Study Journal*, 33, 1-18.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1). *National survey on school violence in Korea*. Retrieved from [https://edujikim.com/customercenter/board/default/view\\_b.asp?intBbsSeq=8&Page=1&intArticle](https://edujikim.com/customercenter/board/default/view_b.asp?intBbsSeq=8&Page=1&intArticle)

Seq=9566.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2). *National survey on school violence in Korea*. Retrieved from

[https://edujikim.com/customercenter/board/default/view\\_b.asp?intBbsSeq=8&Page=1&intArticleSeq=80259](https://edujikim.com/customercenter/board/default/view_b.asp?intBbsSeq=8&Page=1&intArticleSeq=80259).

Van der Velden, F., Brugman, D., Boom, J., & Koops, W. (2010). Moral cognitive processes explaining antisocial behavior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4), 292-301.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 368-375.

- 접수 일 : 2014년 03월 14일
- 심사 일 : 2014년 04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9일